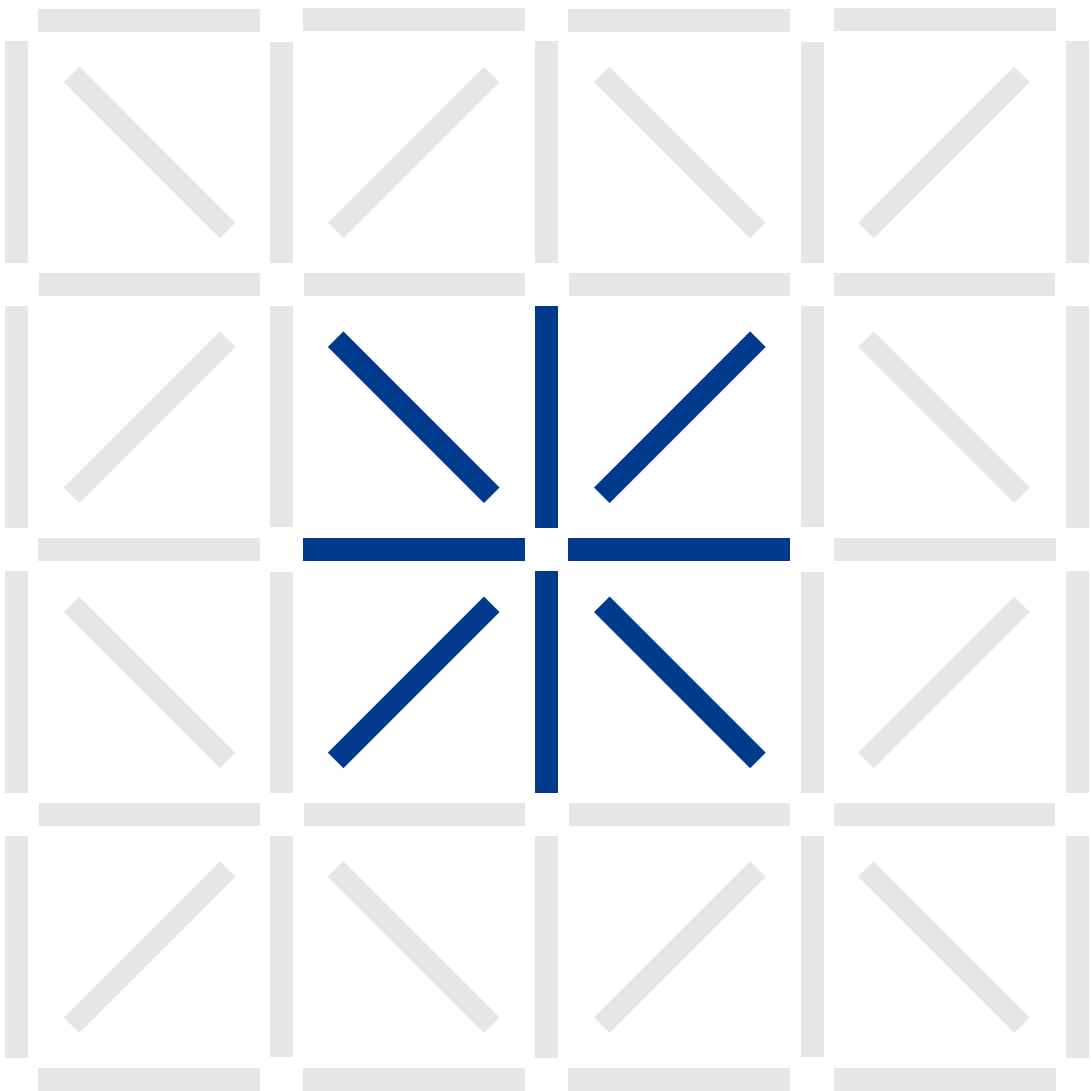


업비트 넥스트 잡 · 2025 성과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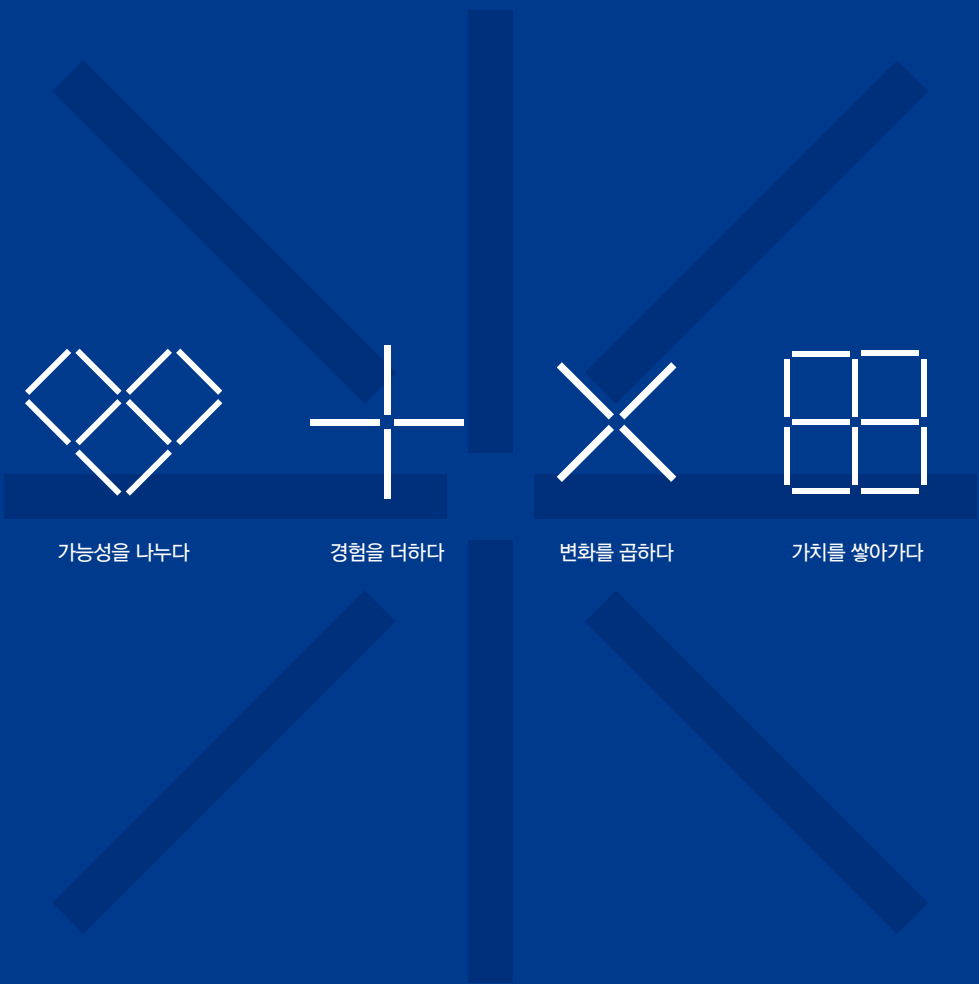
내-일을 함께 만들다

탐색의 첫걸음부터 자립의 현장까지, 청년의 성장의 기록입니다.



두나무 *UPbit*

함께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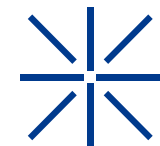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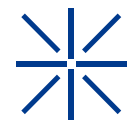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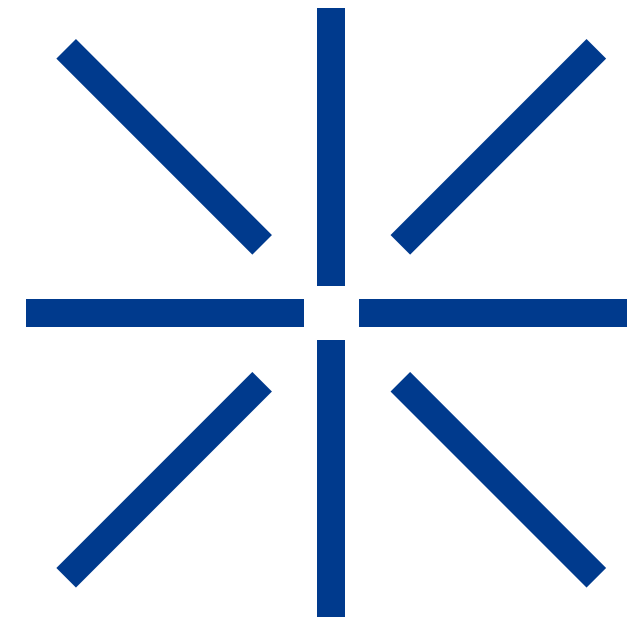
가능성을 나누다

경험을 더하다

변화를 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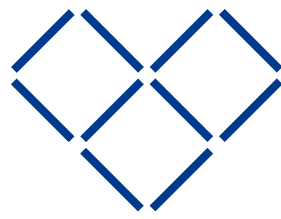
가치를 쌓아가다

업비트 넥스트 잡
2025 성과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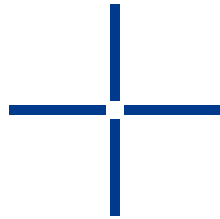


CONTENTS

내-일을
함께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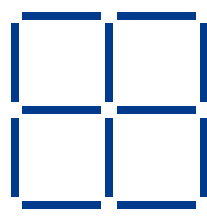
가능성을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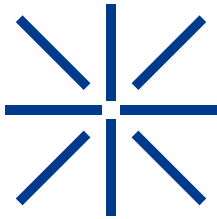
경험을 더하다



변화를 곱하다



가치를 쌓아가다



함께 내일로 나아가다

INTRO

- 06 응원의 글. 두나무
- 07 인사의 글. (사)함께만드는세상

EXECUTIVE SUMMARY

- 10 2025년 핵심 성과
- 12 데이터가 증명하는 임팩트

PART 01. 사업개요

- 16 사업 배경
- 17 사업 목적
- 18 주요 사업
- 19 추진 체계

PART 02. 추진실적

- 22 찾아가는 진로교육
- 23 기간형 인턴십 지원
- 25 금융교육
- 26 창업 지원

PART 03. 사업성과

- 30 인턴십 사업 성과 요약
- 32 연구 개요
- 34 숫자와 목소리로 보는 성과
- 42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PART 04. 창업지원 사례

- 48 꿈을 다시 잇다
창업 지원 참여자 수기
- 50 청년 곁에 서다
창업 컨설턴트 수기

EPILOGUE

- 52 에필로그
- 53 기관소개

응원의 글

청년들의 단단한 내일, 그 눈부신 도전을 응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에 홀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물며 의식주를 비롯한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을 온전히 홀로 책임져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그 홀로서기의 무게는 더욱 무겁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3년 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립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Job)를 찾고 그 일터에서 버텨내며 성장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근육’을 길러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으로 총 1,463명의 청년이 ‘업비트 넥스트 잡’의 여정 속에서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미래를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막연했던 진로를 구체화하고, 일터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정체성을 전환하며, 스스로 삶을 설계 하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키워낸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이자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확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넓은 ‘상생’의 가치로 시선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도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튼튼하게 그려나가겠습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성장’과 ‘상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일터를 더 단단하게 잇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스로의 내일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의 위대한 걸음과 눈부신 도전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나무 대표이사 **오경석**



인사의 글

걸을 지켜준 이들 덕분에, 청년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었습니다

자립이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전장치를 곁에 두었을 때, 비로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런 장치 없이 홀로 버텨야 했던 청년들에게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과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은 지난 20여 년간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해왔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 보며, 그 회복의 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수 없이 확인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역시 이러한 흐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저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자립준비청년에게 맞게 풀어낸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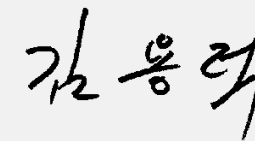
전국 4개 권역의 거점 기관과 40여 개 협력 단체가 함께한 지지방 안에서 청년 253명이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발견했고, 52명이 일터에서 처음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의 의미를 배웠으며, 7개소의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건 일터를 열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걸을 지켜준 거점 기관과 동료, 일터가 함께 만들어준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 청년은 이 사업이 자신에게 “사회가 나를 신뢰한다는 첫 번째 경험”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동안 저희가 해온 일의 의미와, 함께만드는세상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사회적 금융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자립이 결코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3년간 단순한 자원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사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두나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거점 기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 준 청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함께만드는세상 이사장 **김용덕**



내-일을 함께 만들다

다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능성을 나누고, 경험을 더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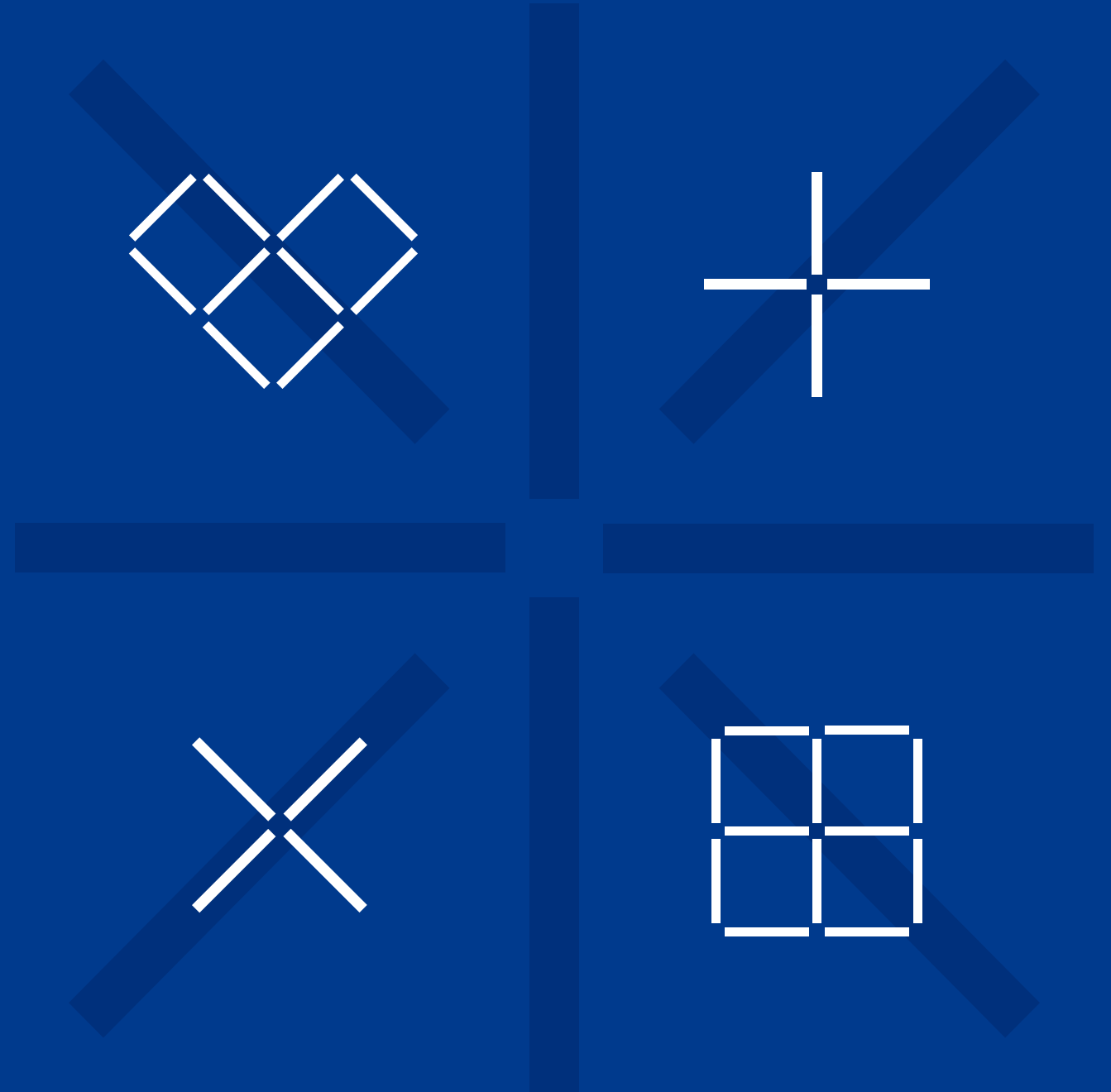
성장의 기반을 쌓아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준비 · 경험 · 성장 · 안착의 4단계 여정 속에서,

올 한 해 577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온 기록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임팩트

경제적 자립의 토대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4.75^점

사회적 관계의 확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전보다 수월해졌다

4.65^점

포용적 일터 문화
일터의 문화 및 분위기 만족도

4.85^점

“전국 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웠고, 업비트 넥스트 잡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동행임을 보여줍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성장
맡은 역할과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4.70^점

자립에 대한 자신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낀다

4.65^점

인턴 후 진로 활동
구직 · 취업 · 학업

65[%]

3차년도, 자립의 줄기로 뻗어나간 확신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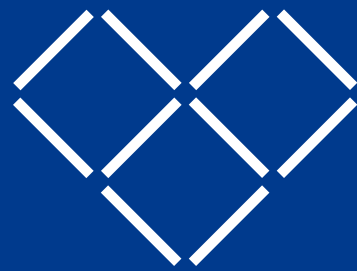
“청년의 삶에 새겨낸 변화, 3차년도가 증명해낸 순간들”

지난 2년이 자립의 토양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과정이었다면, 업비트 넥스트 잡 3년 차인 올해는 [준비 - 경험 - 성장 - 안착]으로 이어지는 지원 모델이 청년들의 삶에 어떻게 단단한 줄기로 뻗어 나가는지 입체적으로 증명해낸 한 해였습니다. **253명**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고, **52명**이 일터에서 처음으로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으며, **265명**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경제적 근육을 길렀고, **7개소**의 청년이 자신만의 일터를 열었습니다. **전국 22개소 네트워크**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웠고, 데이터와 청년들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변화의 임팩트는 이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동행임을 보여줍니다.

3차년도 업비트 넥스트 잡을 진행하며 촘촘하게 설계된 지원의 구조가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서기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간 동행의 증거입니다.

내-일을 함께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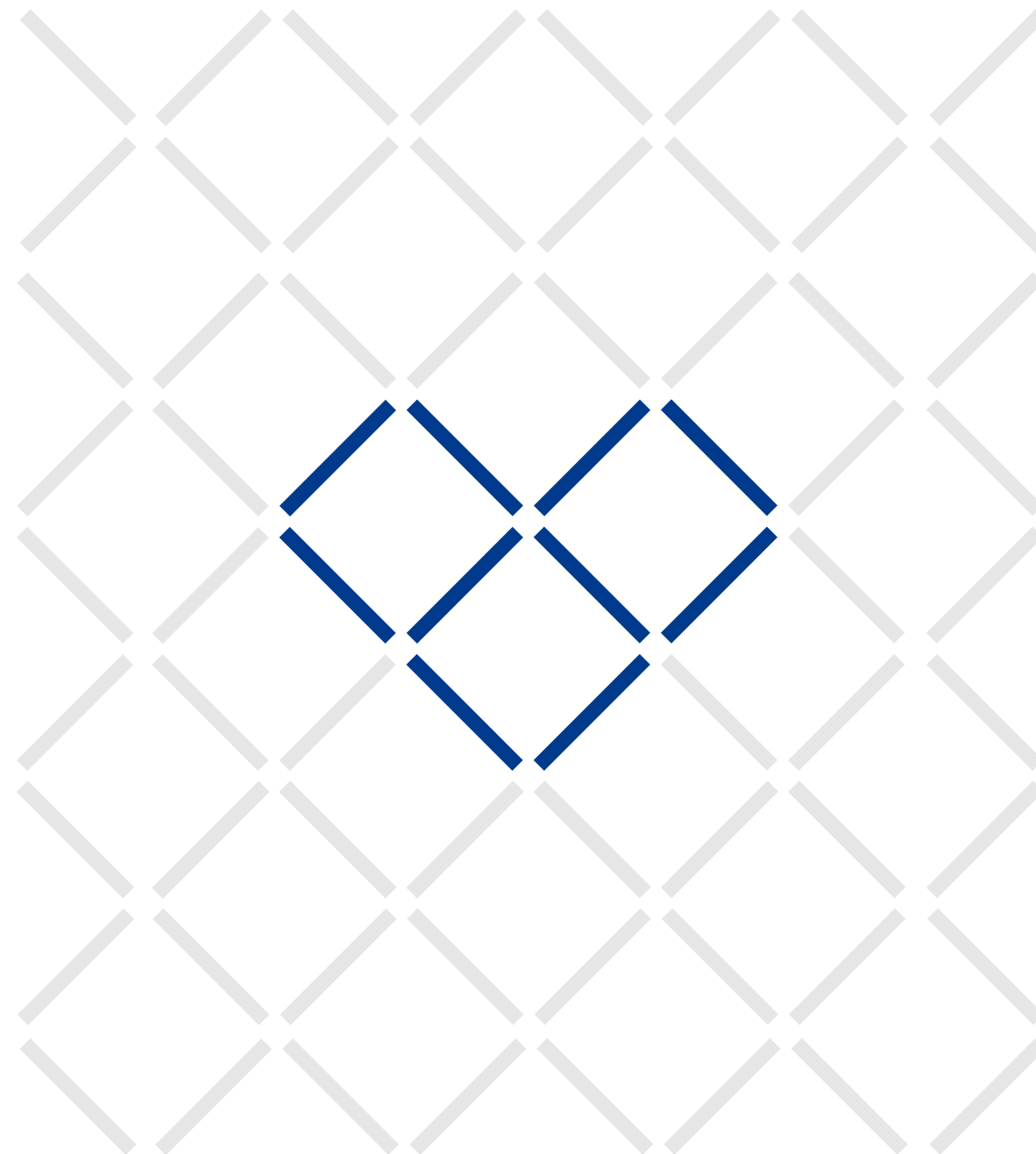
준비하고 · 경험하며 · 성장하고 · 안착하는
577명의 이야기



가능성을 나누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시간과
그 시간을 함께 버텨줄 누군가입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자립은 혼자 힘으로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의 삶에 필요한 작은 가능성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어갑니다.

01. 사업 배경

보호 종료, 그 후 마주하는 현실

매년 약 2,000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의 보호를 뒤로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만 18세라는 이른 나이에 감당해야 할 사회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자립지원금과 주거 지원 등 공적 체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물리적인 생존을 돕는 일시적 방편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립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일(Job)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근육을 길러주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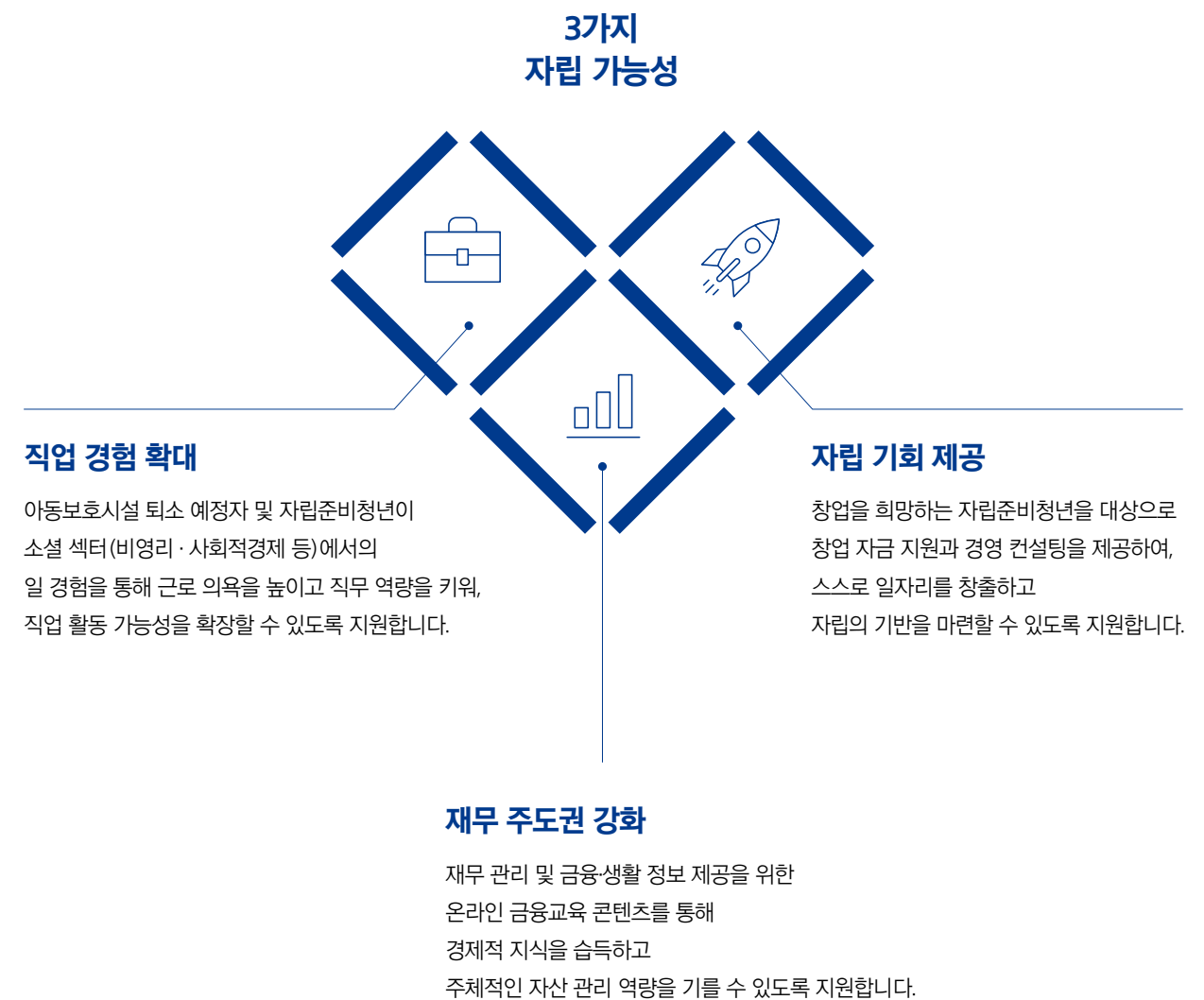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고용과 자립의 격차

보호가 종료된 이후의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고용률은 52.4%로 같은 연령대 일반 청년(61.3%)보다 약 9%p 낮습니다. 취업했다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취업자 중 상당수가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너머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일터에서의 관계 맺기, 조직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청년들은 취업 후에도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고, 잦은 퇴사와 고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버티고 성장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업비트 넥스트 잡' 인가?

'업비트 넥스트 잡'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능을 넘어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험의 자본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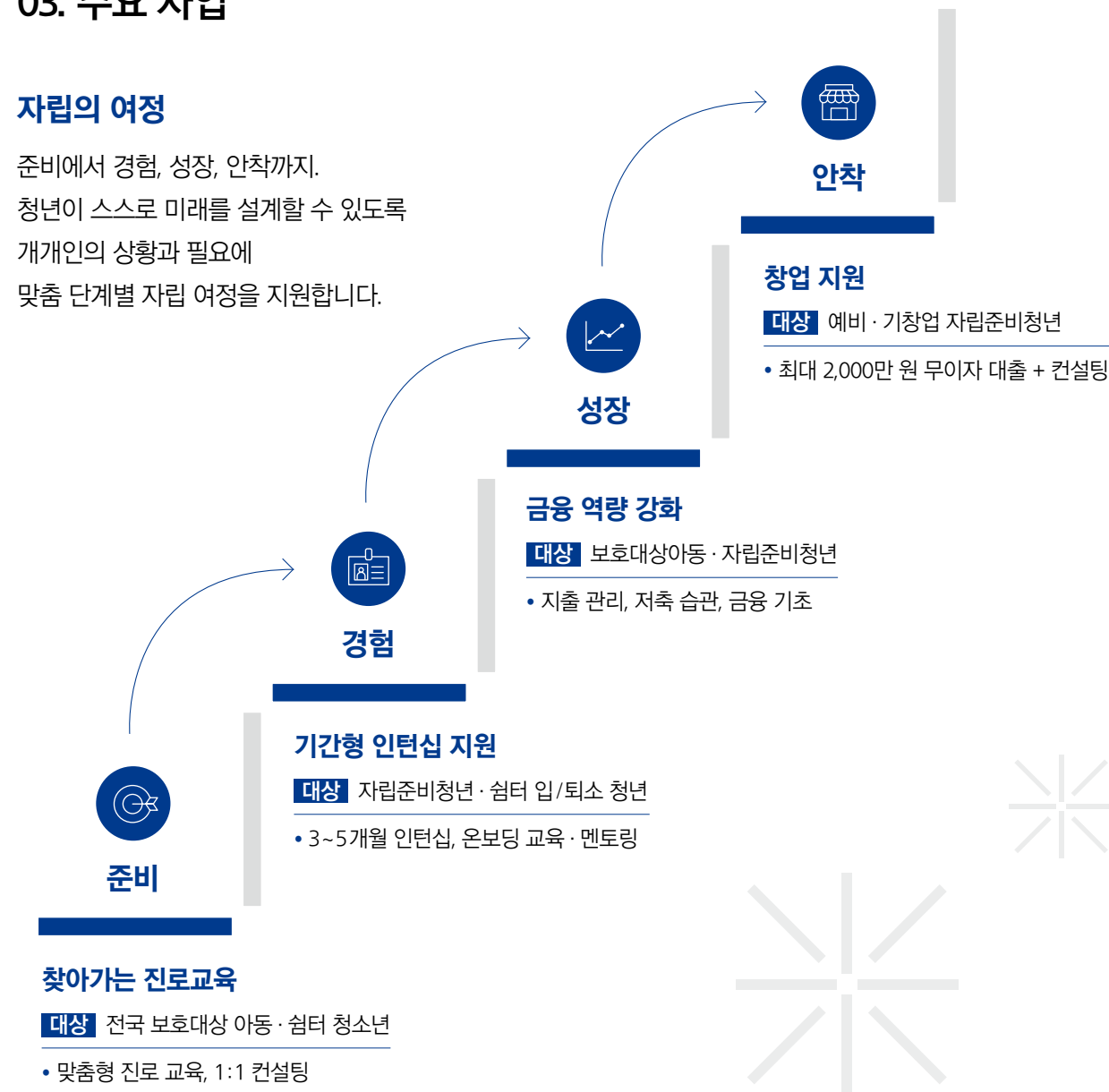
02. 사업 목적



03. 주요 사업

자립의 여정

준비에서 경험, 성장, 안착까지.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춤 단계별 자립 여정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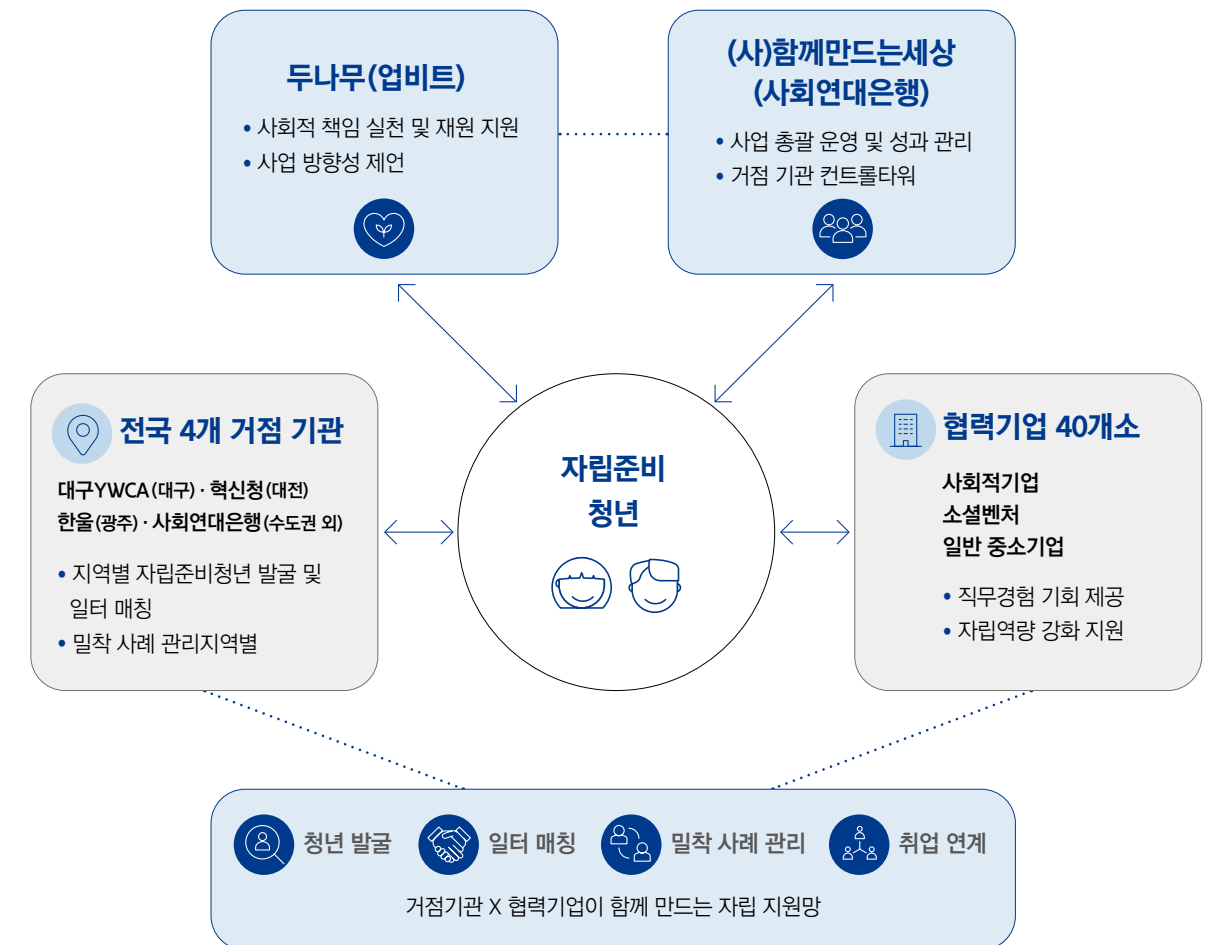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쉼터 입·퇴소 청년이란?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보호 종료 또는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 **쉼터 입·퇴소 청년** :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해 의식주·상담·자립교육을 받았거나, 퇴소 후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으로 연계되어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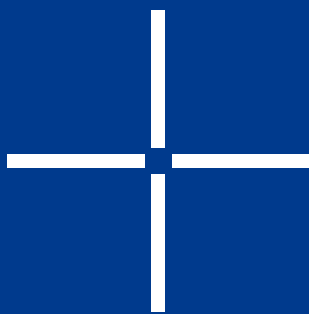
04. 추진 체계

유기적 파트너십 구조



전국 단위의 촘촘한 밀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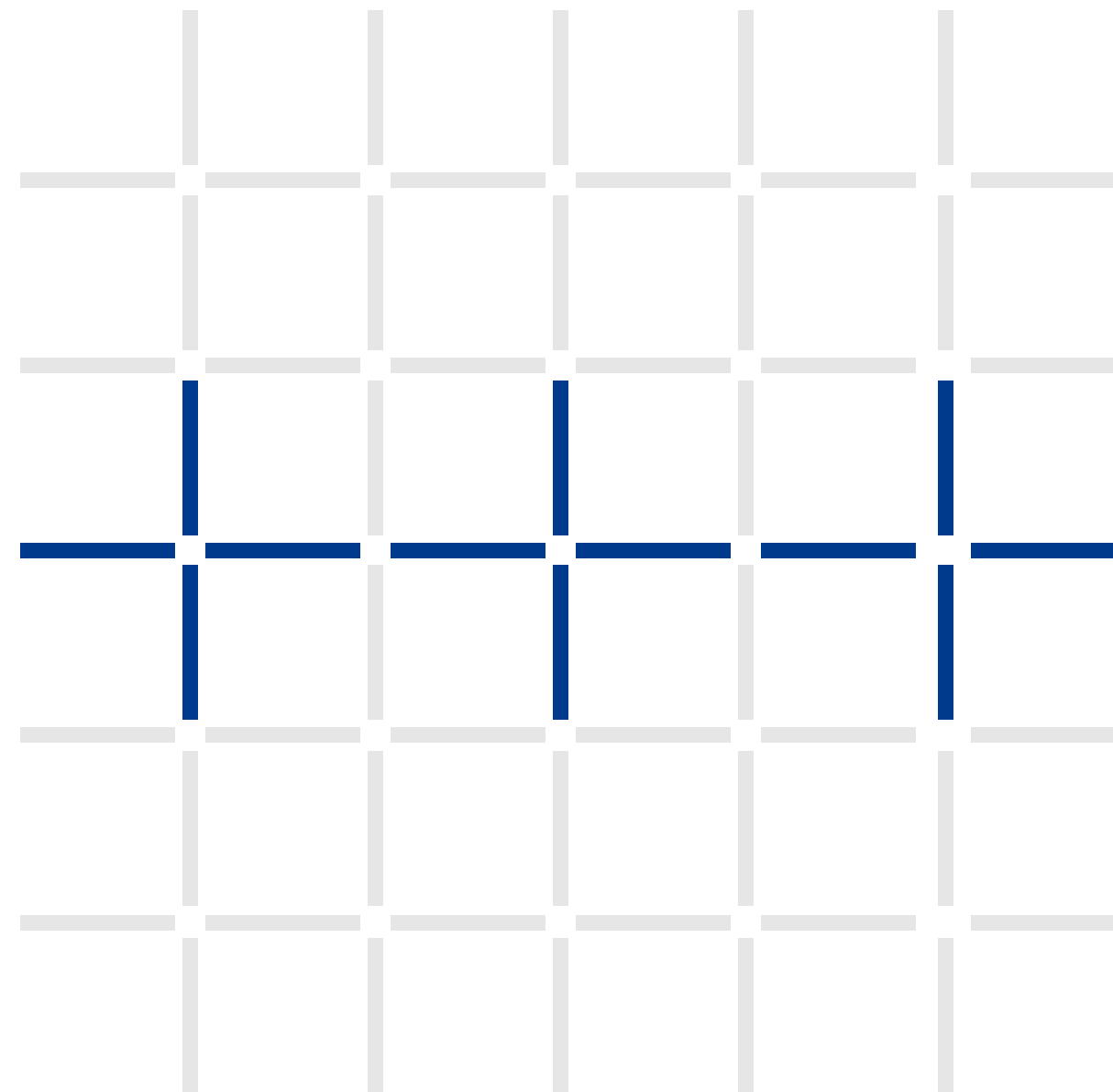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에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 내의 자립 지원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전국구 지원 체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더하다

일과 관계, 그리고 선택의 경험이 더해질 때
청년들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해진 경험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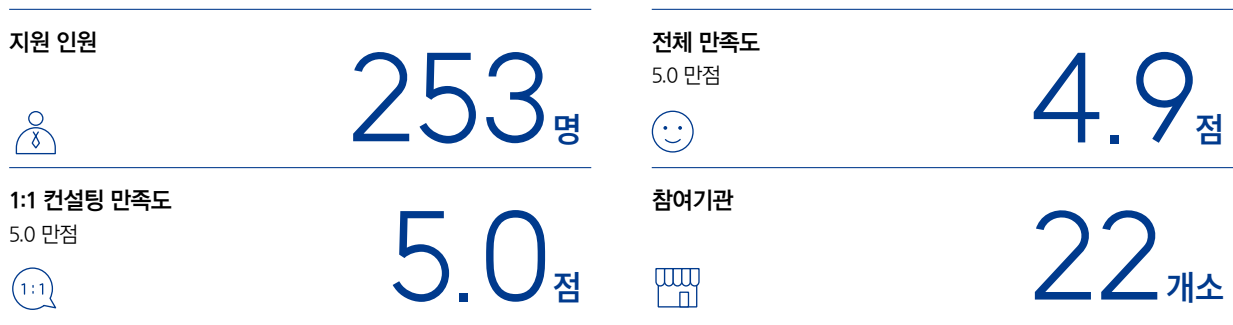


추진 실적

01. 찾아가는 진로교육

자립은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2025년 ‘업비트 넥스트 잡’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전국 각지의 아동양육시설·쉼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1 나를 발견하는 시간 : 자아 탐색과 강점 발견

에니어그램, MBTI,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해 자신의 기질과 강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타인과의 다름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익히는 과정은 사회적 역량의 기초를 다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2 1:1 맞춤형 컨설팅 : 태도의 변화와 고도의 몰입

초기 부담감을 느끼던 청년들이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질문하는 태도로 변화합니다. ‘해야 하니까’라는 의무에서 ‘하고 싶어서’라는 자발적 동기로의 전환이 이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스피치 등 실무 역량을 내재화하며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3 내일의 나침반 : ‘커리어 로드맵’ 완성

교육의 최종 결과물인 커리어 로드맵은 막연한 꿈을 현실적 진로 설계로 구체화한 기록입니다. 퇴소 후 마주할 불확실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이자, 면접의 두려움을 실질적 준비로 승화시킨 의지의 증거입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자기소개서를 내 손으로 완성해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면접 스피치 태도 교육도 실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의 강점이 주변 사람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과 복지 분야로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교육 참여 청소년 소감 중 -

02. 기간형 인턴십 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기꺼이 기다려주는 ‘심리적 안전망’을 갖춘 일터에서 청년들은 단순한 직무 경험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일의 커리어를 설계합니다. 사업 결과 보고와 성과 연구가 증명하듯, 참여 기업들의 깊은 이해와 인내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참여 청년 특성

- 연령 : 20대 중반(60%) 중심, 보호 종료 직후 초기 자립 단계의 청년
- 거주 : 75%가 1인 가구 - 생계와 일상을 홀로 책임지는 상황에서 인턴십에 참여
- 이전 경험 : 95%가 아르바이트·일용직 중심의 단가비정규 노동 경험 - 인턴십이 첫 안정적 일 경험
- 참여 동기 : 생활비·자립 자금 마련(80%)과 희망 직무 경험(70%)이 주요 이유 - 생계와 성장 동시 필요

1 맞춤형 직무 매칭 및 사전 교육

단순한 일자리 배정을 넘어, 청년의 적성과 강점이 일터의 요구 맞닿을 수 있도록 설계된 온보딩 프로세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자기 이해 기반 매칭

참여 청년의 희망 직무, 보유 역량, 심리적 준비도를 다각도로 분석

일터 적격성 심사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성장을 지지하는 기업 우선 발굴

비즈니스 온보딩

비즈니스 매너교육

(직장내 에티켓, 이메일 작성,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방법 습득)

기초직무훈련

(엑셀, 문서 작성 등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필수 툴 활용 능력 배양)

직무교육 만족도
5.0 만점

매칭 적절성
5.0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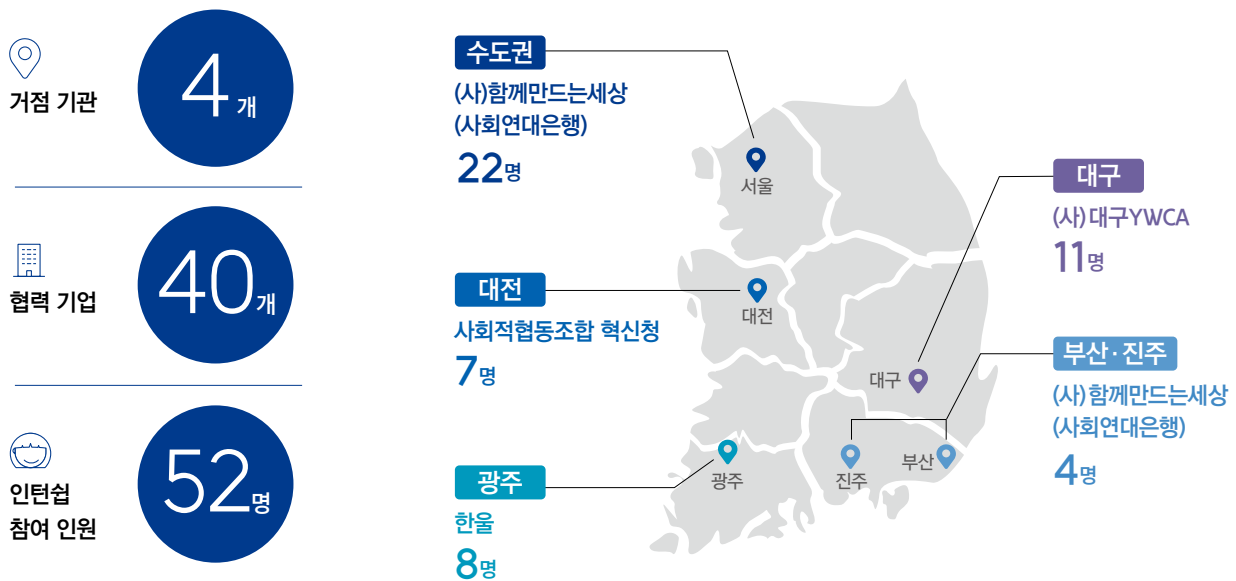
5.0점

4.75점

“막막했던 사회생활, 사전 교육 덕분에
나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2 전국 거점 네트워크 : 촘촘한 자립 지지망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은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거점 기관을 두고 각 거점이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청년을 발굴하고 지역 기반 기업에 직접 연계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적 기업·소셜 벤처·중소기업 등 40개 파트너 기업이 함께하며, 총 52명의 청년이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일하고 자립을 완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협력 기업 리스트

수도권	18개	대전	5개	광주	6개	대구	9개	부산·진주	2개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모레퍼시픽재단	(주)윙윙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대구YWCA		몽실	
그라운드 몫	에코팀	(주)재작소		광장돈까스		(주)민들레가게		초전꽃살장	
나무다플래닛	오픈갤러리	바라커뮤니케이션		사각사각베이커리		(주)운동명가조아집			
라이브기획사	유스보이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주)에스존		(주)호텔라운제나			
마인드브이알	청년독립지원청	하이든		테이크파이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몽실꿈터	청소년행복재단			한울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드바세	큐어링랩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밸런스	플래닛주민센터					서남기업(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하하호호그룹					케이케이(주)			

3 참여자 임팩트 : 자신감, 관계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인턴십은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자신감 4.50점)을 회복시키고, 1인 가구 75%에게 일터가 첫 번째 사회적 울타리가 되었습니다.(새로운 연결 4.45점). 변화는 인턴십 이후에도 이어져 65%가 구직·취업·학업을 지속했고, 취업 연계 사례는 14건에 달합니다.

03. 금융교육

자립의 지속성과 완성도를 결정하는 힘은 금융 문해력, 즉 번 돈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 금융교육의 핵심은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과 습관을 만드는 '체득형 교육'입니다. 직접 가계부를 쓰고, 저축 미션을 완수하며, 실생활 밀접 주제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경제적 근육을 기릅니다.

지원 인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 아동



265명

교육 만족도



94.0%

저축 완주율

Money Challenge



95.2%

재정 자립 역량 향상



97.8%



월 평균 지출 감소

Money Training

184,000원

1 [Money Challenge] 성공의 기억을 만드는 저축 습관

3개월간 소액 저축 미션 수행 및 인증을 통해 나도 돈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는 경험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성취감과 금융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냅니다. 저축 완료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산 형성의 마중물을 제공합니다.

2 [Money Training] 현명한 소비와 지출의 설계

4~6주간의 가계부 기록 및 지출 예산 수립 실습을 통해 자신의 지출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여 안정적인 경제 습관을 만듭니다. 가계부 키트 제공 및 전담 멘토 피드백으로 트레이닝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Money Study]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식의 습득

보험, 신용관리, 전세사기 예방 등 실생활 밀접 주제의 4~8회차 온/오프라인 금융 기초 교육을 통해 막연한 금융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을 기릅니다.

04.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창업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을 넘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삶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고도화된 자립의 형태입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도전하는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사다리를 제공합니다.



1 무이자 마이크로크레딧

최대 2,000만 원의 창업 자금 무이자 대출.

성실 상환자 대상 10% 페이백(Pay-back) 제도로 상환 의지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2 맞춤 경영 컨설팅

기업당 2회 이상의 맞춤형 경영 컨설팅.

입지 선정,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세무/회계 실무, 마케팅 전략 등 창업 초기 필수 역량을 전수합니다.

“넥스트 잡의 지원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신뢰한다는 첫 번째 증거이었습니다.”

경험은 더해지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일과 관계, 그리고 선택의 경험이 쌓이며

청년들은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작은 경험의 축적은

더 큰 내일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변화를 곱하다

각자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변화의 크기는 배가 됩니다.

수치로 증명된 성과와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턴십 사업 성과

01.인턴십 사업 성과 요약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변화는 일터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태도를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터 적응에 그치지 않고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사회적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각자의 속도로 자립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1 핵심 성과

만족도		
종합 만족도 5.0점 만점	 4.70점	직장문화(4.85) 및 거점 기관 지원(4.80)에 대한 높은 만족감
역량 강화		
자신감·책임감 5.0점 만점	 4.70점	'주어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에서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회인'으로의 정체성 변화
관계적 확장		
사회적 연결성 5.0점 만점	 4.65점	참여자 75%가 1인 가구 고립된 삶에서 '사회적 울타리' 경험
경제 지원		
경제적 도움 5.0점 만점	 4.75점	생계 압박을 벗어나 안전한 진로 탐색의 시간 확보
지속 가능성		
미래 준비	 65%	인턴 종료 직후 구직활동(40%) 및 취업·학업 지속(25%)

2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참여자가 경험한 주요 변화

성과 영역	인턴십에서 한 경험	나타난 변화	의미
 일터 적응 (사회생활의 첫 경험)	동료와 협업 및 소통	소통 방식 학습, 책임감 형성	'알바'가 아닌,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의 전환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결과물 완성, 칭찬 경험, 다양한 업무 수행	성취감, 자신감 형성, 강점 및 성향 파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원하는지 구체화
 삶의 안정과 사회적 연결	일상 복귀, 소득 확보,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형성	삶의 리듬 회복, 정서적 안정, 관계망 확장	혼자 버티던 상태에서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경험

3 업비트 넥스트 잡의 성과 모델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을 스스로 내딛을 수 있도록, 3단계 구조가 순차적으로 작동합니다.



03. 숫자와 목소리로 보는 성과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모두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이라는 경험을 통해 사회 속에서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딛는 한 걸음은 자신의 힘으로 다음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자립으로의 전환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이 한 걸음의 성취가 ❶ 일터 적응 ❷ 자기 이해 ❸ 사회적 연결과 삶의 적응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자신감 회복, 사회생활 감각 경험,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같은 작은 성취들이 축적되어 온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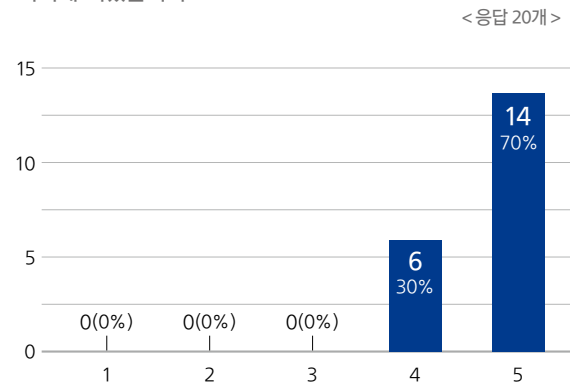
일터로 내딛는 첫 걸음

[핵심성과] 맡은 역할과 책임 중요도 인지 4.70점
5.0점 만점

- 사회생활의 기본 감각 형성
- 수동적 ‘알바생’에서 주체적 ‘직업인’으로의 전환
- 일상적 경험을 통한 책임감 및 협업 능력 향상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변화는 ‘일터’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직무 기술을 익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사회생활의 감각이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태도를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참여자 대상 설문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응답이 4.7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 전반에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알바할 때는 혼자, 아니면 사장님이란 둘이 일했는데 지금은 좀 더 직장 생활을 한다는 느낌이에요. 사회생활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면서 일한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화를 받고 제 업무가 아니면 돌려드려야 하는데, 처음엔 그냥 돌리고 끝냈거든요. 나중에 부장님이나 관장님께서는 ‘누구누구 어디서 전화 오셨습니까’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알려주셔서, 그때 실수했구나 싶어서 바로 고쳤어요.”

- 소 이 -

참여자들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또한 새롭게 배워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소통을 최소화하고 혼자 업무를 처리하던 민석은 인턴십을 통해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며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다녔던 회사들은 조금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을 더 안 하고 싶고 제 업무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소통의 장점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됐어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새로운 시야가 생긴 것 같아요.”

- 민 석 -

이러한 경험의 핵심은 참여자들이 인턴십을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체감하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연은 “알바는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느낌이었지만 인턴십에서는 내가 맡은 일을 잘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어진 일’이 외부에서 내려온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이라면, ‘맡은 일’은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참여자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의 감각을 배우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익히며 일터로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길 : 성취감, 자기 이해, 진로 탐색

[핵심성과] 진로 구체화 4.55점 | 5.0점 만점
자신감 형성 4.50점 | 5.0점 만점
자기 이해 증진 4.45점 | 5.0점 만점

- 성취의 경험을 통한 사회적 효능감 형성
- 실전 업무를 통한 객관적 성향 및 강점 발견
- 나에게 맞는 진로의 발견과 선택지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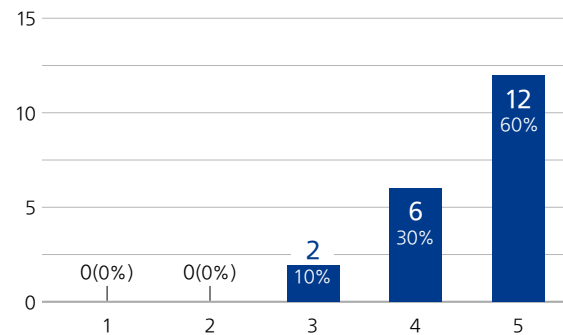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을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두 번째 변화는 진로 탐색에 필수적인 자기 이해와 성취감입니다. 참여자들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의 순간들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높아진 자기 이해는 자연스럽게 나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자신감으로 연결시키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설문에서도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항목이 4.45점, ‘새로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는 항목이 4.5점으로 나타나, 이러한 내면적 변화가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성장으로 체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해냈다는 감각 : 작은 성취가 만드는 자신감

먼저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일을 통해 경험한 성취감**이었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경험** 속에서 강한 보람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성취 경험은 자신이 사회 속에서 실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감각, 다시 말해 **사회적 효능감**을 확인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새로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응답 20개>



“제가 어르신들 인터뷰를 하나씩 다 들으면서 편집을 했는데, 마지막에 상영회에서 그분들을 직접 보니까 연예인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관객 분들 반응도 되게 감동이었고 저도 같이 보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추가 근무도 했었는데, 결과물을 보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태 윤 -

“제가 인플루언서 리스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협찬 연락 드리고 협찬 확정까지 얻어내고. 마지막에는 업로드된 콘텐츠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그 과정에 다 기여를 했으니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딱 결과물이 있으니까 또 클라이언트들이 ‘담당자님 되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실 때 더 뿌듯 했어요.”

- 현 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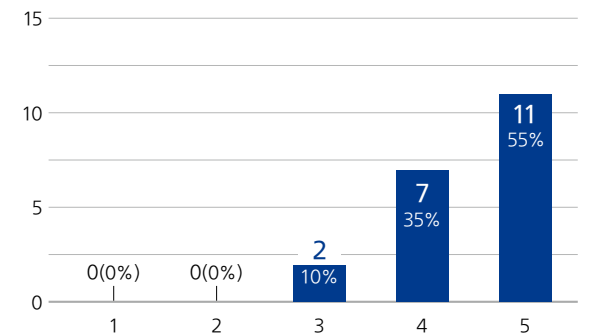
이처럼 자신이 깊게 관여한 일이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되고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자신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반드시 큰 성과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넥스트 잡 참여자 서준이는 행사 공간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미리 대비해 칭찬을 받았던 순간을 뿌듯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이 돌아가도록 자신이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감각**은 안정적인 직장 경험이 많지 않았던 참여자들에게 ‘내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② 일이 보여준 나 : 강점과 성향의 발견

성취감과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일을 해보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향, 강점,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전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일 경험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응답 20개>



“일을 하면서 제가 업무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는 편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을 하게 된 것 같고, 스스로가 책임감이 있는 편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 지 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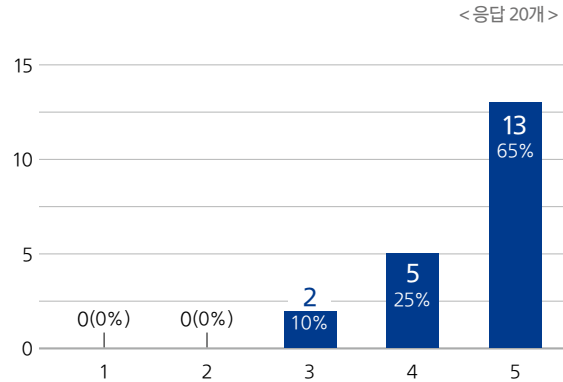
“저는 제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는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 하 린 -

③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곳 : 진로의 실험실

자기 이해는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설문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에 되었다’는 응답이 4.55점**을 기록한 것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은이는 이전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인턴십을 통해 더 구체화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년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심이 생기면서 필요하다면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에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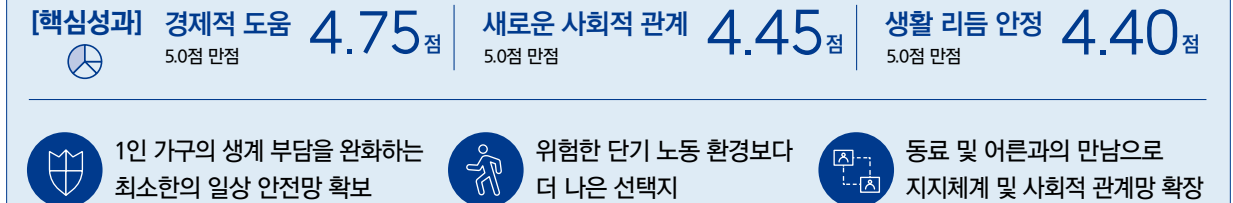


“저는 원래도 남들 돕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누구를 돕고 싶다 어느 특정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게 조금 더 생기는, 좀 더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이런 쪽으로 마음을 고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뭘 배워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 사회복지도 공부해봐야겠다 싶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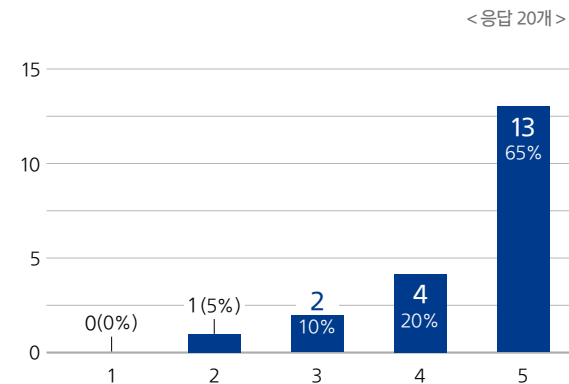
- 다은 -

반대로 일부 참여자들은 실제 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음을 확인하며, 맞지 않는 진로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방향을 구체화해갔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인턴십 경험은 참여자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실제 경험 속에서 시험해보고 조정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업비트 넥스트 잡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화** 해나가는 ‘**진로의 실험실**’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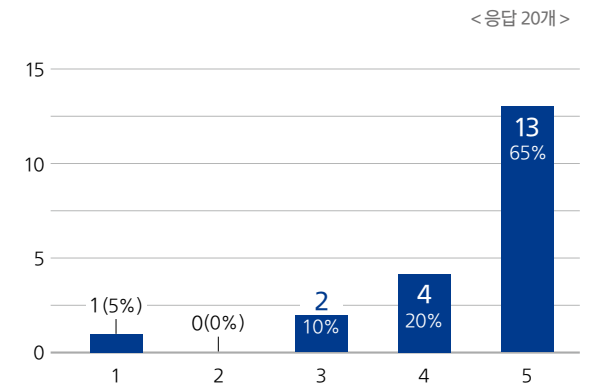
삶을 버티고 넓혀가는 걸음 : 위기에서 사회적 울타리로



인턴십 참여를 통해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이 늘어났습니다.



인턴십 참여 이후, 생활 리듬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1인 가구로 참여자 대다수가 자신의 생계와 일상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75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은 인턴십이 참여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1년 동안 피폐해지는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어요. 다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갈피도 못 잡고 있었는데, 맨날 집에만 있다가 넥스트 잡에 참여하면서 일단 밖에 나가게 되니 정신이 맑아지는게 느껴졌어요. 만약 이 사업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좀 피폐한 상태로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 서진 -

물리적 변화 만큼이나 참여자들이 많이 이야기한 변화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몇몇 참여자들에게는 일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른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알바할 때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세상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서 아예 일을 못했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틀리기 싫으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었는데. 인턴십 하면서는 그래도 내가 배우러 왔고 좀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물어보면서 할 수 있었고. 대표님도 제가 ‘배우러 온 사람’이라는 이해가 있으셔서 진짜 사소한 것도 막 다 질문해 볼 수 있었어요.”

- 다은 -

“저한테 현정 님은 인턴이 아니라 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팀에 많이 도움이 됐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저 퇴사하고 나서도 팀원 분들끼리의 저녁 약속에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나중에 편지도 써주시고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 현정 -

“제가 원래는 가족이랑 남자친구랑 동기 3명, 이게 인간 관계 끝이었는데, 일하게 되면서 거기에 눌러 오는 분들 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대표님들과도 주기적으로 연락 하게 돼서 관점도 좀 넓어진 것 같고 인간관계 자체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인턴십을 한 곳이 사실 좀 동네 사랑방처럼 그냥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와도 되거든요.”

- 하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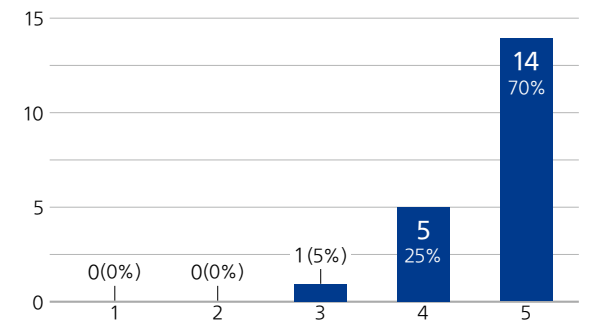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정서적 · 경제적 · 관계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사회적 울타리’**로 작동했습니다. 인턴십은 생활을 버틸 최소한의 소득을 마련하게 하고, 집 밖으로 나와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게 하며,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동료와 어른을 만나게 하고, 넓은 관계와 가능성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즉 참여자들에게 이 인턴십은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인 동시에 **혼자서 버티던 삶을 잠시 받쳐주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게 하는 자립으로의 첫 과정**이었습니다.

소결 : 각자의 위치에서 내딛는 ‘작은 한 걸음’

참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감각을 익혀갔고, 실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을 형성해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성장과 강점을 이해하고 진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동시에 일터에서 만난 동료와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참여자 설문에서도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4.65점**으로 높게 나타나 이러한 변화가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진전으로 체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참여자들이 처한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속도로 사회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낀다.

< 응답 20개 >



“이 사업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줬어요”

업비트 넥스트 잡을 처음 알게 된 건 또래 청년들의 입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프로그램들은 장학금 지원이나 일회성 활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 경험 관련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거의 유일무이했던 사업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인 은경 님은 그렇게 그라운드웍에서 두 차례의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고립 · 은둔 청소년을 위한 모금 업무를 맡아 천만 원 목표를 100% 달성했고, “저는 그냥 경험 이 없으니까 다 되는 줄 알았어요”라며 웃었지만, 그 경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의 인턴십을 거치며 은경 님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를 강점으로 다시 읽어 내게 되었고, 지금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일을 목표로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대비는 없어요. 그런데 엄청 두렵지는 않아요.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이 사업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줬어요.” 은경 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 은경 님 이야기 -

0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업비트 넥스트 잡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과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단순한 일 경험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여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통합 지원 모델입니다. 기존 지원 체계와의 차별점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지원(공공 및 타 민간)	업비트 넥스트 잡	차별적 가치
 지원 대상	취업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청년 중심	사회 진입 이전 단계, 진로 탐색 중인 청년까지 포괄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수당·정착금 등 제도적·경제적 지원, 또는 직무교육·자격증·취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에 집중	일터를 매개로 한 생계·진로·관계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구조	제도와 일상을 잇는 중간 지대 형성
 일 경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단기 현장체험·인턴십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는 기업을 선별해 구성된 호의적 일터에서의 인턴십	처음 일해볼 수 있는 안전한 출발점
 운영 방식	중앙 주도의 일괄 배치, 문제 발생 시 탈락·종료 처리	지역 거점 기관이 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기업·단체와 협력해 일터를 발굴·조율	흔들려도 이탈하지 않는 포용적 구조
 자립의 정의	개인의 의지나 역량에 기댄 홀로서기 강조	지역사회와 일터, 지원조직이 함께 지지하는 생태계적 과정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의 자립 생태계 구축
 핵심 질문	“취업했는가?” “자격증을 땀는가?”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을 안전하게 경험했는가?” “일터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립의 감각을 키웠는가?”	사회 진입의 질을 묻는 관점으로서의 전환

1 제도와 일상 사이를 잇는 ‘중간 지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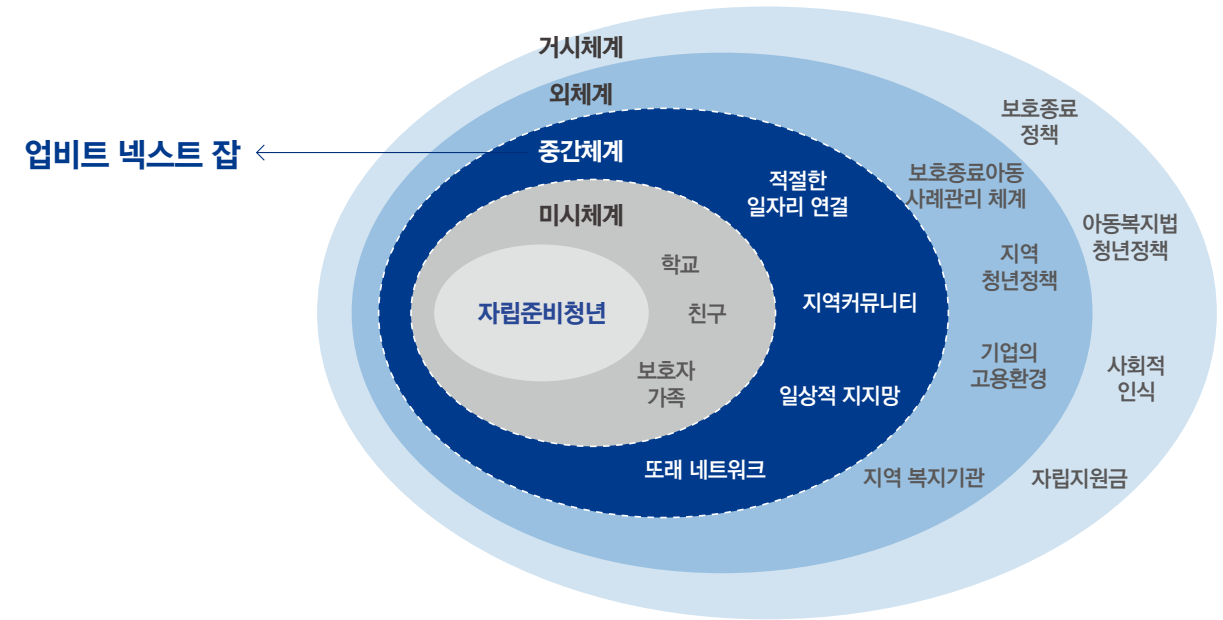


Figure 1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의 중간 지대를 메꾸는 업비트 넥스트 잡¹⁾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지금까지 주로 자립수당이나 정착금과 같은 제도적·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고, 관계를 만들고, 자신의 방향을 찾는 과정을 여전히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제도를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게 만들어 줄 연결의 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바로 이 ‘중간 지대’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일터에서 동료와 관계를 맺고, 거점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구성합니다. **즉 업비트 넥스트 잡은 제도적 지원과 개인의 자립 사이에 놓여 있던 공백을 관계와 경험을 통해 채워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²⁾

1)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의 생태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에 맞게 연구진이 재구성함.
 2) 이러한 ‘중간 지대’의 중요성은 브론펜브레너(U.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에서도 확인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시 체계는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이 개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영역을, 거시 체계는 제도와 문화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구조를 의미한다. 개인의 발달은 이처럼 다양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사이를 잇는 연결, 즉 ‘중간 지대’가 취약할 경우 발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2 호의적인 환경에서 시작하는 안전한 출발

일반적인 노동시장은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보호망이 약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작은 실패나 갈등도 곧바로 생계와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업비트 넥스트 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터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입니다.

설문에서 **‘일터의 문화 및 분위기’ 만족도가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4.85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참여자들이 일하는 환경 자체를 긍정적으로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보통 약을 먹는다고 말을 하면은 잘 안 뽑아요. 근데 카페 사장님은 제 상황을 다 알고도 저를 뽑아 주신거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신 거잖아요. 덕분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 수 아 -

이처럼 업비트 넥스트 잡이 호의적인 일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일터의 문화와 환경**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턴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핍니다. 조직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인턴을 관리할 담당자가 부족하거나, 인턴에게 기대하는 업무 역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선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인턴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배우러 온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조직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거점 기관 담당자들은 청년을 바로 업무에 투입하려는 기업보다는 청년이 조직과 지역사회 관계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의 흐름을 배우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들이 인턴ships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은 임금과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참여자들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은 단순한 고용을 넘어 **청년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일자리’**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는 ‘임금 수준 만족도(4.65점)’와 ‘경제적 도움(4.75점)’이라는 설문 지표로도 입증됩니다.

결국 업비트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들을 곧바로 노동시장에 투입하기보다 **일의 감각과 자신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일터’를 제공**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 민간 연대 생태계와 유연한 지원 구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일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함께만드는세상이 20년 이상 구축해온 민간 연대 기반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지역 거점 기관 중심의 운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일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기관들이 청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해 일터를 발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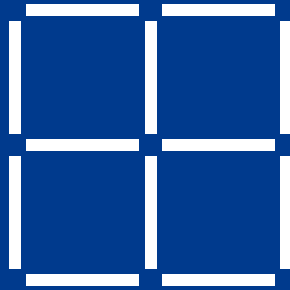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는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보다 유연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전의 경우 참여 청년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쉼터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인턴ship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쉼터 담당 교사까지 함께 참여하는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조정했습니다. 광주와 수도권에서도 일터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곧바로 참여를 중단하기보다는 다른 일터나 직무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청년을 먼저 선발한 뒤 참여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려는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업비트 넥스트 잡은 기존의 일자리에 청년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상황과 지역의 자원을 함께 고려해 일 경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에서 중요한 것이 흔들리는 과정 자체를 함께 버텨주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4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생태계적 접근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ship은 자립을 청년 개인의 의지나 역량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관계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은 단순히 취업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망의 부재,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완충지대의 부족, 그리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본 사업은 청년 개인에게 교육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일하고 관계 맺으며 점진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함께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립을 ‘혼자서 버텨내는 능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일터, 지원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적 과정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립 지원 방식과 차별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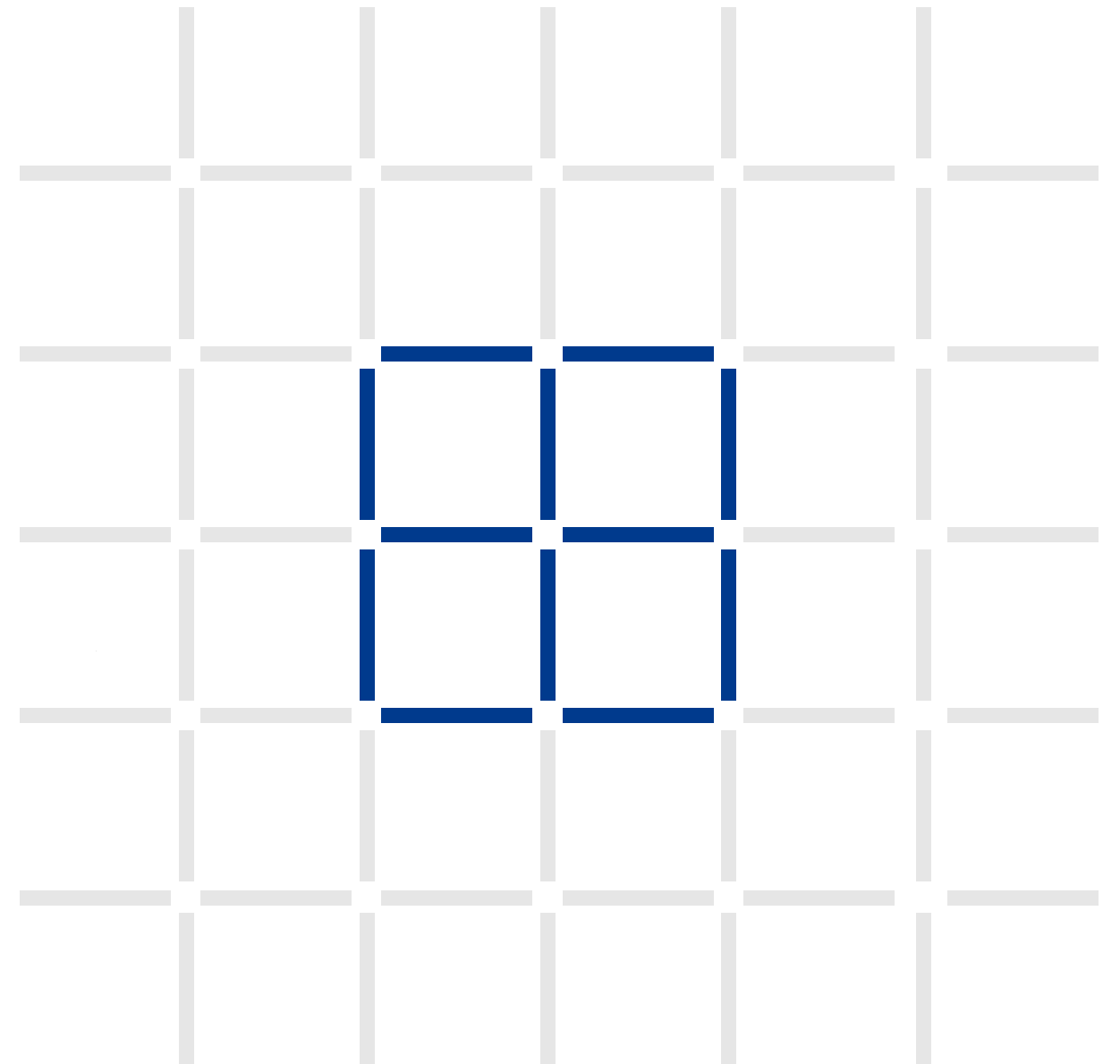
가치를 쌓아가다

작은 도전과 선택의 순간들이

청년들만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경험 속에서 발견한 방향은 하나의 이야기로 쌓여,

스스로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창업 지원 사례 01

꿈을 다시 잇다

창업 지원 참여자 수기
장 현 민 (가명)



업비트 넥스트 잡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4살에 서울로 상경해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청담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늦은 나이임에도 과감히 도전했고, 배움에 대한 욕심으로 더 큰 매장으로 옮겨 다니며 성장해왔습니다. 스텝 시절에는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아끼고 또 아끼며 버텨야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꾸준히 저축을 이어갔고 약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던 즈음, 고향으로 내려가 남자 머리 전문 1인 샵을 차리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부동산 상권을 분석하며 지식도 익혀 두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아 결정을 내렸는데, 결과는 약 2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오랜 시간 아끼고 버티며 모은 돈의 의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포기하려 했던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같은 보육원 출신 동생을 통해 업비트 넥스트 잡 창업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껏 제 인생에서 쉽게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사 기회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가능성'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부터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뵈 **넥스트 잡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면접에서는 긴장한 탓에 말도 많이 더듬었지만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뒤에 책임감과 부담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상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컨설턴트님과 하루 종일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 고객 유입이 어려운 입지를 걸러내는 법, 보증금이 낮아도 시설 상태와 렌트 프리 조건을 따져야 실질 비용이 보인다는 것 등 혼자였다면 몰랐을 것들을 배웠습니다. 남자 머리 전문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상권 특성을 제대로 짚어 주신 그 조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맞는 공간을 발견했고, 저에게 맞는 공간을 발견했고 계약과 인테리어를 거쳐 결국 창업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던 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커트를 마치고 손님이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시던 그 표정에서 오래전 미용을 시작하게 만든 디자이너의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그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문을 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 신경 썼는데 손님들이 '여기 오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 주실 때 그 마음이 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버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통해 '함께한다는 것'의 무게를 처음으로 다르게 느꼈습니다.** 컨설턴트님이 하루 종일 옆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을 때 그 느낌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직원도 고용하고 2호점, 3호점까지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며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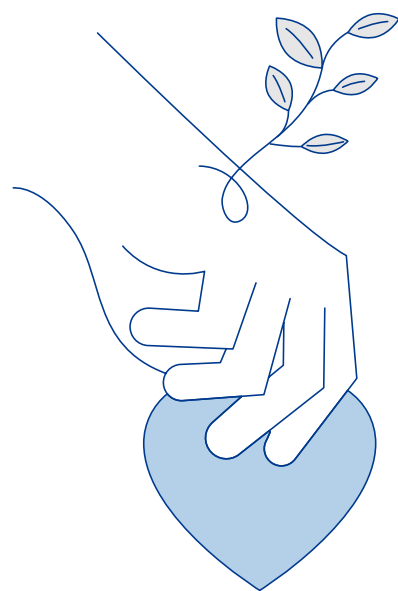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업비트 넥스트 잡 창업지원 사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업 지원 사례 02

청년 곁에 서다

창업 컨설턴트 수기

나 화 속 아이코스 대표



‘업비트 넥스트 잡’ 청년창업지원 사업의 시작부터 3년 차인 올해 까지 현장 심사와 최종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때로는 오프라인 매장의 상권 분석과 사업 운영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기도 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은 대체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돕고 싶어 하는 이타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다워, 컨설턴트인 저에게도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꿈꾸며 카페를 창업한 두 청년이 기억납니다. 아쉽게도 카페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은 ‘선의’만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미 점포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했기에, 저는 더욱 냉정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운영 조언을 건네는 데 집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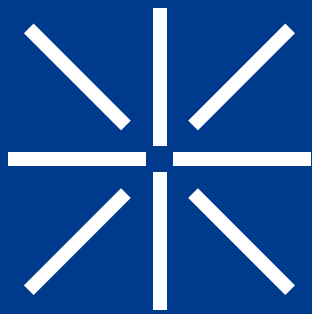
목공, 도예, 요리 등 예술·문화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조직이라는 울타리 없이 자신의 삶과 기술이 곧 생업으로 이어지는 만큼 심사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적 성과가 즉각 나타나기 힘든 분야이기에 전문성을 타겟고객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할 마케팅 역량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임을 고려하여, 이 도전이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실패하더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창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창업은 세상을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가는 훌륭한 사회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요리 실력이 뛰어난 <한설> 대표는 창업 1년 만에 만나 요리 아카데미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 만족도는 높지만 수익성이 저하되는 딜레마를 겪고 있었으나,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 수익성을 강화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담동에서의 오랜 경험을 뒤로하고 고향 평택에서 남성 전용 미용실을 준비하던 청년도 떠오릅니다. 화려한 외관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는 점포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던 옹골찬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창업 현장에서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청년들을 만난 것은 저에게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넥스트 잡’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내일로 나아가다

가능성을 나누고

경험을 더하며

변화를 곱하고

가치를 함께 쌓아가며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이어갑니다.

EPILOGUE

기관소개

두나무 *UPbit*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기술과 금융을 기반으로 청년의 성장과 자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적금융 선도기관입니다.
정부 · 기업 · 지자체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소개

업비트 넥스트 잡 2025 성과자료집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두나무(업비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40 알파라운드
Telephone 02-2274-9637 **Fax** 02-2274-9643
Homepage www.dunamunextseries.or.kr
www.bss.or.kr
Instagram [social_solidarity_bank](#)